돌아섬

2020년 사순 시기 묵상집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여는 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요 모든 은총의 원인입니다.

오, 놀라운 십자가의 권능이여! 오, 형언할 수 없는 수난의 영광이여!
거기에는 주님의 법정이 있고 세상의 심판이 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당신은 모든 것을 당신께로 이끄셨습니다.
옛적에 유다의 유일한 성전에서 상징이나 그림자로서만 행하던 것을
이제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들이 참된 신심으로 공적이고 장엄한
예식으로 거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요 모든 은총의 원인인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레위인들의 지위는 더욱 높아졌고 장로들의 품위는
더욱 고양되었으며 사제들이 받는 도유는 더욱 거룩해졌습니다.
믿는 이들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약함에서 힘을,
수치에서 영광을, 죽음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여러 모양의 물질적 제사가 끝났습니다. 단 한 번 바치신 몸과
피의 희생 제물은 다른 모든 희생 제물의 완성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 이십니다.

- 성 레오 1세 교황의 강론에서 -

돌아섬

2020년 사순 시기 묵상집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짜임

03 묵상 시 1

04 복음 묵상

43 묵상 시 2

44 전례 안내: 주님 수난 성지 주일

48 복음 묵상

사순 시기 묵상집은
후원과 기도로 동참하는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엮었습니다.
이 묵상집이 여러분 곁에서 매일 읽혀져,
하느님을 향해 돌아서는 은총의 사순 시기를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길라잡이'는 꼰솔라따 선교 수도회의
이동욱 베니뇨 신부님(케냐 선교)께서 집필해 주셨습니다.

주님, 찬미받으소서

- 성 아우구스티노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니
온갖 찬미를 받아 마땅하십니다.
당신의 권능은 크고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작은 피조물인 인간이
당신께 찬미 노래 올립니다.

불안정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
자신이 지은 죄의 증인
교만하기 짝이 없으나
당신 창조의 작은 부분이기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분도
당신이시고
당신을 그리워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도
당신이시니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저희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요엘 2,12–18 / 2코린 5,20–6,2 / 마태 6,1–6.16–18.

02/26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말씀 길라잡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 시기가 시작되면 주님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위해 자선과 기도 그리고 단식을 권고합니다. 이 세 가지 실천 사항에 대해 오늘의 복음은 '남에게 보여 주기 식의 위선'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실질적인 실천'을 명합니다.

매 주일 미사 전, 선교지의 신자들은 아침 기도를 봉헌합니다. 기도 가운데 '교회의 6계명'이 있습니다. 그중 제2계명은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의 단식 그리고 매주 금요일의 금육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저는 늘 이 계명이 현실성이 없다고 느낍니다. 안타깝게도 이곳 현지 신자들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하루에 한두 끼 정도 건너뛰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금육이나 단식이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내는 특별한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원치 않아도 늘 해오던 일상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순 시기 동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절제하고 이웃을 돕는 선행과 규칙적인 기도를 권합니다.

복된 사순 시기 동안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잠시 포기함이 어떨는지요?

단식

단식은 풍부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먼저 단식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다. 단식은 형제애를 목적으로 한다. 즉 단식은 원수들을 위한 간구의 행위이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려는 마음의 표지이며, 기도와 자선을 받쳐 주는 기틀이다.

아델레 스카르네라, 『4천년의 기도, 단식』

실천 한 가지

하느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금육과 단식을 기쁘게 지킵니다.

단식은 절제의 덕행을 견고하게 하는 수단이다. / 포티카의 디아도쿠스

재의 예식
다음 목요일

신명 30,15–20 / 루카 9,22–25.

02/27

선택

말씀 길라잡이

오늘 제1독서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이라는 두 가지 길에 대한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느님을 선택하고 자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큰 본당,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서 지금의 선교지, 모든 것이 부족한 곳으로 발령을 받아 온 날은 실로 충격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선교지라 물도 전기도 사제관도 없는 그야말로 허허벌판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선교지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선교지를 떠날 것인지'를 선택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선교지에서 몇 주를 힘겹게 보내며 깨달은 것은 바로 제가 겪는 외적인 어려움(십자가)이 이곳 주민들에게는 일상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목자로서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갈 수 없는 측은지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느님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주님께서는 저에게 매일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저를 생명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매일 선택의 순간에서 생명과 행복을 선택합시다.

하느님의 이름

15세기의 신비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하느님께 제일 알맞다고 알려진 이름은 '연민'이라고 했다. 가까운 친구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 그리고 군중, 병자, 가난하고 굶주린 자를 보고 깊이 감동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연민의 정이 미치는 범위를 잘 드러낸다. 그분의 연민은 존재 밑바탕에서 우러나는 고뇌요, 오장육부에서 올라오는 즉각적 반응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가난했고, 병자들과 함께 앓았으며, 먹을 것 없는 사람들과 함께 배고팠다. 우리가 함께하도록 초대받은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견디는 바로 이 연민의 정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처럼 깊은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약하고 힘없는 곳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은, 오로지 고통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감동시켰을 때일 뿐이다.

메리 다피츠, 『정오에서 해질녘까지』

실천 한 가지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 격려의 문자를 보냅니다.

사랑으로 다가가 모든 이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 한민택

재의 예식
다음 금요일

이사 58,1–9ㄴ / 마태 9,14–15.

02/28

왜 보아주지 않습니까?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말씀 길라잡이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단식은 다이어트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됩니다. 남들이 보아주는, 알아주는 외적인 모습을 위해 가장 손쉽게 하는 것이 단식 내지는 소식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이러한 의지를 가진 단식(다이어트)이 이곳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매일 원하지 않는 단식을 해야 하며, 비만이 부의 상징인 이들에게 '참된 단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오늘 독서와 복음은 '참된 단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줍니다. 참된 단식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음식만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집착이나 속박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웃의 어려움과 불의한 속박이나 집착을 보는 눈을 가지고 그들이 그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복된 사순 시기 동안 나에게 진정한 단식이란 무엇인지 찾아봄이 어떨까요?

"왜 (가난한 이들을) 보아주지 않습니까?"

"왜 (억압받는 이들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내적 자유

각자에게는 자신의 고유한 습관, 종속, 중독이 있다. 사순 시기는 내적 자유에 이르는 수련 시기다. 이 시기 동안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포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고유한 내적 자유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 사순 시기에 하는 수련은 삶의 참된 목표 의식을 갖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무엇을 위해 달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수련에 모든 힘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필요하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기 때문에 항상 더 하느님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단련하는 것이다.

안셀름 그륀, 『내면의 샘』

실천 한 가지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스스로 빛에 머물고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깨닫게 된다. / 자크 필립

재의 예식
다음 토요일

이사 58,9ㄷ–14 / 루카 5,27ㄴ–32.

02/29

너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말씀 길라잡이

오래전에 선교사가 되려고 했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도 할 일이 많고 가난한 이들도 많은데, 왜 굳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 질문은, 선교사는 항상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 원주민은 '도움을 받는 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언젠가 선교에 관한 수업이 끝나고, 에티오피아 교구 사제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비록 가난하지만 선교사의 도움 없이도 살아왔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이는 선교에 있어서 물질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선교지에서 과연 선교사들은 복음의 예수님께서 언급한 '의사'이며, '회개시키는 이' 일까요? 어떻게 보면, 원주민이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예수님의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제자로서 원주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들의 순수함과 선함을 만날 때 우리는 물질주의, 이기주의, 세속주의라는 병에서 회복되고 회개하여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마음을 열고

사랑은 마음을 열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반기고 그들에게 우리 마음속의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조금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열고 그들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스태니슬라우스 케네디, 『하느님의 우물』

실천 한 가지

오늘 하루 힘들고 짜증나는 순간에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기쁘게 봉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알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 조너선 모리스

창세 2,7–9; 3,1–7 / 로마 5,12–19 또는 5,12.17–79 / 마태 4,1–11.

03/01 다 감수하시겠습니까?

말씀 길라잡이

두 해 전, 인기 있었던 TV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아마도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자녀를 서울대 의대에 보내는 것이 소원인 부모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명한 입시 코디네이터를 찾아가 자녀를 맡아줄 것을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입시 코디네이터는 이렇게 묻습니다. "행여 그런 일(불행한 일,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다 받아들이시겠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흔히 악마의 유혹에 순진하게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마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는 우리의 간절함과 욕망을 더욱 부추기며 이것이 가져올 결과를 알려주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우리는 '다 감수하겠냐?'는 물음에 쉽게 동의해 버리는 것입니다. 악마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 삶 안에서 쉽게 그리고 교묘하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며,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 뜻에 합당한지 기도 안에서 식별하고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분별하는 습관

분별하는 습관은 삶의 모든 면에서 하느님께 귀 기울이는 태도이다. 성 베네딕도는 그것을 '마음의 귀'로 경청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하느님을 향한 기도어린 집중의 삶이다. 그것은 토머스 켈리가 '단순화'라고 부르는 관상적 자세이기도 한데, 그는 이 자세를 '하느님께 온전히 굴복한 상태로 … 거룩한 중심으로부터 … 한 가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거룩한 중심에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며, 본래의 고향에 머물게 된다.

로즈 메리 도허티, 『분별』

실천 한 가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담아 먼저 웃으며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 줄지라도 날마다 복음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성덕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레위 19,1-2.11-18 / 마태 25,31-46.

03/02

가장 작은 이

말씀 길라잡이

사목 안에서 제가 느낀 난감한 순간 중 하나는 도움 청하는 이의 요청을 거절하는 일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이의 진실 여부는 오랜 사제 생활의 경험 안에서 터득할 수 있겠지만, 서품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제에게는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몇 번을 속고 나면 도움 청하는 모든 이들을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며, 사실 여부를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봉사하기 위하여 사제가 되었는데, 정작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는 제 자신을 보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거절한 다음에는 늘 오늘의 복음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도움을 청한 이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지?' '난 예수님을 거절한 것인가?' … 언제쯤 이런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주님의 은총을 청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위에 누가 '가장 작은 이'인지 둘러봅시다.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몇 년 전 밀워키에 사는 영업 사원들이 계약을 맺기 위해 시카고로 갔다. 그들은 저마다 아내에게 저녁 식사에 맞추어 여유 있게 돌아오겠노라고 단단히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회합이 길어지는 바람에 그들은 기차표를 들고 기차역으로 달려야만 했다. 그들이 역 구내로 밀려들어 가던 중 한 동료가 사과 가판대를 건드려 넘어뜨리는 바람에 사과가 와르르 쏟아졌다. 하지만 그들은 그대로 기차를 향해 달려갔으며 간신히 올라타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멈춰 서더니 일행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역 구내로 향했다. 그는 되돌아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열 살쯤 된 사과 장수 소년은 넘어진 가판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소년은 시각 장애인이었던 것이다. 그는 굴러떨어진 사과를 주워 담고 나서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애야, 이 10달러는 사과를 떨어뜨린 보상이란다. 오늘 하루가 네게 엉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러고 돌아서는데 소년이 외쳤다.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통로를 지나가던 그는 걸음을 멈추고 소년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프랭크 미할릭, 『느낌이 있는 이야기』

실천 한 가지

나로 인해 마음을 다친 이가 있다면 먼저 용서를 청합니다.

하느님께 가는 길에는 세 단계가 있다.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다. / 성 아우구스티노

이사 55,10–11 / 마태 6,7–15.

03/03

나의 말은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말씀 길라잡이

처음 사제가 되었을 때, 능숙하지 않은 영어로 매일 강론을 준비하는 것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강론을 준비하고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고치는 과정을 겪으니 덕분에 영어가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하지 않기 위해 써 놓은 강론을 읽다 보니 그것이 습관이 되어 원고 없이는 강론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스와힐리어(케냐 공용어)를 주로 쓰는 곳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언어만 바뀌었을 뿐, 상황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미사 시간에 스와힐리어로 작성한 강론을 읽다가 가끔 신자들의 표정을 봅니다. 제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또 가끔은 제가 쓴 강론이지만 스와힐리어로 읽다 보니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땐 정말 답답합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함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리라 믿으며, 다시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되뇌어 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으며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머물며 당신의 뜻을 이루시길 기도합시다.

삶의 두 차원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차원, 자신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과 하늘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 자신이 할 부분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고, 하늘에 맡길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야 한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늘에 맡길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양 노심초사하는 것도 잘못이다. 우리는 삶에서 간절히 애쓰는 동시에 부담 없이 자유로워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끝없이 다가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며 사는 길이다.

윤재윤, 『좋은생각 215호』

실천 한 가지

오늘 하루 모든 일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해냅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평가할 때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만져 본다. / 헌트

요나 3,1–10 / 루카 11,29–32.

03/04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었던 요나나, 지혜의 상징이었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들에게 가장 위험한 유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선교지에서 하느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선교사 자신의 이름만 남는 것입니다. 처음엔 현지인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여러 지인들과 NGO 단체를 통해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사업과 더불어 학교, 진료소, 성당을 짓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함께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교사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여 왕이 되어버립니다. 하느님이 왕이 되어야 할 곳에 선교사가 왕이 되어 하느님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모든 이들이 하느님 대신에 선교사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늘 우리를 부르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하느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도록 노력합시다.

영광은 하느님께 돌리셨나요?

여러 날 동안 정성과 심혈을 기울인 중요한 행사를 마친 어느 날 저녁, 그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자랑도 빼놓지 않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마지막까지 유심히 들으시던 어머니가 한 말씀 하셨다. "그래서 영광은 하느님께 돌리셨나요?"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어머니께서는 그 일의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고 일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었다. 멍하니 있는 나에게 어머니가 덧붙이셨다.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제가 되셔요. 부탁입니다."

오세민, 『네 신부님의 어머니』

실천 한 가지

주님을 위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오늘 하루 동안 화살 기도를 자주 바칩니다.

하느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바친 시간은 결코 허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 오상의 성 비오

에스 4,17ⓜ.17ⓝ–17ⓟ.17ⓠ–17ⓡ / 마태 7,7–12.

03/05

당신 말고는 도와줄 이가 없는데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매년 사순 시기가 되면 신자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비신자들이나 냉담 교우들에게 성당에 나올 것을 권유하며 가정 축복을 합니다. 선교지 마을의 가정이 늘 그렇듯, 그들의 사는 모습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으며 '어떻게 이런 집,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사제로서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가지고 누리는 많은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드리게 됩니다.

이들이 하느님께 청한다면 과연 무엇을 청할까? 제가 보기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청해야 할 것 같은데…. 다만 이들이 그들의 청을 들어줄 유일한 분은 주님이심을 믿으며 지치지 않고 청하기를 기도합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독일의 한 신부님이 본당 행사를 준비하는데 7,000마르크가 부족했다. 그는 아침 미사를 봉헌하러 가면서 부족한 예산 때문에 걱정이 앞섰지만, 그날 복음 말씀인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에 힘을 얻어 성체 축성 후 7,000마르크를 청하는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는 하루 종일 행사 준비를 했다. 그 날 저녁, 한 젊은 여성이 신부님에게 면담을 청했다. 자기가 본당 행사를 위해 기부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갑자기 본당 행사를 위해 기부를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고 처음에는 1,000마르크를 내려고 했다가 '내게는 최근 어떤 계약금으로 받은 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 그 전액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에 계약금 7,000마르크를 기부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신부님은 하느님의 섭리를 느끼며 그가 미사 시간에 드렸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약속한 그 돈은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에 신부님에게 배달되었다.

도리아나 잠보니, 『일상에서 만나는 하느님 손길』

실천 한 가지

오늘 하루 세 번 이상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기쁨을 증거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에제 18,21–28 / 마태 5,20ㄴ–26.

03/06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말씀 길라잡이

한 번은 급한 볼일이 있어 선교지에서 나이로비로 저가 항공을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좌측 측면 좌석에 케냐인 모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아직 어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줄도 모르고 엄마가 사 준 맛있는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겠지만 그날따라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가요? 제가 있는 선교지의 아이들은 과자를 어쩌다 한 번 먹고, 다 해어진 옷을 입고, 비행기는커녕 신부님 차 뒤편의 짐 싣는 곳이라도 타고 싶어서 안달인데, 여기 이 아이는 좋은 옷에, 맛있는 과자에, 심지어 자신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주님! 이 얼마나 불공평한가요?'

우리는 흔히 TV 뉴스의 사건 사고를 보며, 세상의 굶주림과 불의를 보며, 부자들과 불의한 자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에게 심지어 하느님에게까지 그 책임을 돌립니다. 우리는 마치 그러한 불의와 불행에 책임이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세상의 일에 책임이 없을까요?

하느님께서 공평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불공평, 불의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닐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근원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청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리 존재의 근원을 찾아 주려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자입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 그들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근원입니다.

이제민, 『사랑이 언덕을 감싸 안으니』

실천 한 가지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다 해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 역시 세상에 가득하다. / 헬렌 켈러

신명 26,16-19 / 마태 5,43-48.

03/07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면

말씀 길라잡이

거룩함을 향하여 순례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분만 보고 따라 걸어도 쉽지 않은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인데 우리는 가끔 한눈을 팝니다. 이제 시작한 선교지의 신자들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걷는 데 있어 무엇이 큰 방해물인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관습, 편협한 그들의 경험, 그리고 가난으로 배우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함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방해물은 무턱대고 따라가는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몇 해 전 이곳 선교지에 심한 가뭄이 들어 많은 이들이 간절히 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 수확 실패로 인해 굶주림이 더 심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든 이들이 심술이 나서 비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겁주어서 비를 내리게 해야 한다." 이상하게도 많은 이가 이런 관습을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동네에 홀로 사는 노인들을 실제로 위협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노인들은 밤이 되면 겁이 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과연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기쁨을 찾는 길

인생사가 너무 서글퍼서 사소하지만 대단히 실제적인 방식들을 통해서는 더 이상 기쁨을 느낄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선택하는 이는 기쁨 그 자체를 상급으로 받습니다. 수없이 많은 거절과 고난, 상처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일단 기쁨을 찾는 길을 선택하면 삶은 곧 잔치가 됩니다.

헨리 나우웬, 『탕자의 귀향』

실천 한 가지

불필요한 호기심 충족을 위한 인터넷 서핑과 TV 시청을 절제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다가가는 방법은 각기 다르다. / 마르틴 부버

창세 12,1–4ㄱ / 2티모 1,8ㄴ–10 / 마태 17,1–9.

03/08

십자가 없는 부활

말씀 길라잡이

예수님의 세 제자는 거룩하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부활하실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조금 맛보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이 얼마나 좋았으면 영원히 머물고자 합니다.

이탈리아로 본격적인 수련을 가기 전, 맛보기로 이탈리아 생활과 언어를 경험하는 두 달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갓난아기와 같은 수준의 언어 능력이라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 때면 성령이 저에게 내려와 내일 아침이 되면 이탈리아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두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지만, 성령이 저에게 내려올 리가 없었습니다. 귀국 후 영적 지도 신부님과의 만남에서 이탈리아 생활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저에게 오늘 복음을 이야기하시며 제가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원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산에서 내려가십니다. 영광에 머물지 않으시고 당신이 가셔야 할 수난과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십자가 없는 부활, 사순이 없는 부활만을 원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곧은길이 굽은 길에게

어느 날, 굽은 길이 곧은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좋겠다." 곧은길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물었습니다. "뭐가?" 굽은 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너는 굽은 곳이 없이 시원하게 뻗어있으니 뭐든 빠르고 편하잖아. 사람들도 나보다는 너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자 곧은길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난 네가 훨씬 더 부러운걸. 너는 길이 굽어 있으니 군데군데 풀잎도 자라고 낙엽도 모이고 눈도 쌓이잖아. 내 길에는 오로지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들만 있으니 씨앗은 나오자마자 밟히기 일쑤고, 낙엽은 떨어지자마자 사방으로 흩어져 버려. 사람은 많지만 삭막하고 외로워." 굽은 길은 그제야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도 표정만큼은 환하게 빛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충무, 『사방이 온통 행복인데』

실천 한 가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침묵을 생각하며 참아냅니다.

고통 없이는 승리도 없다. 가시 없이는 왕좌도 없다. 아픔 없이는 영광도 없다. / 윌리엄 펜

다니 9,4ㄴ–10 / 루카 6,36–38.

03/09

얼굴에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말씀 길라잡이

사제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며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화끈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당시엔 나름의 이유와 변명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의 판단 부족과 경험 부족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제가 들었던 말은 "만약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으셨다면,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것이다!"였습니다. 이 말은 제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할 사제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과연 사제로서, 선교사로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이 상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소중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이 상처가 무디어져서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사제로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라는 인호를 받았는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묵상해봅시다.

변한다는 것

변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하느님의 뜻을 알고, 내 생각으로 하느님을 위한 일을 한 것'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고 하느님의 일을 한 것'으로 바뀌는 것, 즉 나 중심의 삶에서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알아차림'이 있을 때 하느님의 일을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규한, 『내 삶의 디딤돌, 잠심』

실천 한 가지

죄인들에게 넘겨지셨던 무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게 상처를 주었던 이웃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 묵주 기도 1단을 바칩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에 관해 아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일이다. / 칼 라너

이사 1,10.16–20 / 마태 23,1–12.

03/10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말씀 길라잡이

수도회에서 인사 발령 때 수도 장상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신학생 양성소에 보낼 지도 신부를 찾는 일입니다. 아무도 선뜻 지원하지 않으며, 설령 제안을 받아도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순명'이라는 이름하에 지도 신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게 이 제안이 들어온다면 아마도 망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신학생처럼 일과표를 따라야 하고 기도와 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의 행동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이 비판은 직접적으로는 지도자들을 향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비판이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과연 일치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지 말입니다.

길이 되는 사람

그대가 시내에서 집을 찾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대는 사람들에게 그집이 어디에 있는지 물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알지요. 저 큰길로 죽 내려가서 성당이 나오거든 오른쪽으로 돌아 두 구획을 더 내려가세요. 그런 다음 왼쪽으로 돌면 길 오른쪽 다섯 번째 집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난감해하는 당신이 안쓰러워 이렇게 말하리라. "이봐요. 지금 가르쳐 준 방향 같은 건 다 잊어버려요. 집을 가르쳐 줄 테니 날 따라와요." 예수께서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

프랭크 미할릭, 『느낌이 있는 이야기』

실천 한 가지

서먹서먹했던 이웃이나 직장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합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머무를 수 없다. 사랑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행동이 바로 봉사이다. / 콜카타의 성녀 데레사

예레 18,18-20 / 마태 20,17-28.

03/11

너희는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 못한다

말씀 길라잡이

처음 선교지를 열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교리 교사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이 예비 신자들이어서 수녀님들과 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대도시 본당에 있을 때, 매년 교리 교육을 하고 세례성사를 주는 것에 익숙해져 이곳 선교지에서도 어렵게 1년간의 교리 교육 후에 세례성사를 주었습니다. 부족한 교리는 지속적인 교육으로 만회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세례 후 성체를 모시는 신자들의 수는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성체를 모시는 이들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알고서 청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에 늦게 오면서도, 주일 미사를 빠지고도 고해성사 없이 성체를 모시러 오는 이들을 보며 좀 더 충분한 교리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년에서 2년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준비는 과연 새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사제로서 성사를 습관적으로 베푸는 것은 아닌지?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주일 미사를 의무로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모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기도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하느님께 전해질까요? 전 지금 숨이 막힐만큼 힘들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느님께 전해집니다. 하지만 '전해진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 꼭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답장을 쓰면서 문득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느님은 인간이 바치는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는 것을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갖고 싶은 것을 바라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와타나베 가즈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 웃을 수 있어요』

실천 한 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나누어 줍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서 울리는 하느님 말씀에 공명하는 것이다. / 리처드 로어

예레 17,5–10 / 루카 16,19–31.

03/12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말씀 길라잡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오늘의 복음 '부자와 거지 라자로'는 과연 위로가 될까요? 돈이 없어서 아파도 진료소에 가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아야 하고, 돈이 없어서 자신은 물론 자녀들이 굶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면, 죽음 이후 영원한 행복의 보장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갖은 악행과 부정부패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죽음 이후 그들의 영원한 고통이 현실 속 가난한 이들에게 과연 위안이 될까요?

답답하고 어려운 선교지의 상황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납니다. 어쩌면 저는 '자비의 하느님'보다 '정의의 하느님'을 더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정의로운 하느님이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좁은 소견인가 봅니다. 선교지의 가난한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으며, 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며 행복해합니다. 비교는 그들이 아닌 바로 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선교사로서 이곳 주민들에게 또 배우게 됩니다.

신앙의 길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충실히 가는 것입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

순례자는 길을 가면서 길 위에 펼쳐진 인내와 관용도 배웁니다. 인내는 다른 이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과 다름을 참아내고, 업신여기고 심판하고 넘어뜨리고 싶은 사람을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관용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며 논쟁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을 바꾸어 다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순례는 인내와 관용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순례자는 길을 가며 사랑의 인간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이제민, 『사랑이 언덕을 감싸 안으니』

실천 한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진심으로 격려해 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 제임스 오펜하임

창세 37,3-4.12-13ㄷ.17ㄹ-28 / 마태 21,33-43.45-46.

03/13

주님께서 이루신 일은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말씀 길라잡이

'살라마'라는 예비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에이즈로 많이 아팠지만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사위가 결혼 예물을 충분히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정아버지는 그녀를 강제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얼마 후 돈을 좀 더 많이 치르는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두 번째 결혼에서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에이즈에 감염되었습니다. 얼마 후 두 번째 남편은 죽고 그녀는 미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살라마의 병세가 악화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자 저는 급하게 '마그렛'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병자성사를 주었습니다.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얼마 후 하느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녀의 기구한 삶을 보며 장례 미사와 장지 예절을 신자들과 함께 성대히 그리고 정성껏 치렀습니다. 가톨릭을 모르는 지역 주민들은 미사와 장지 예절을 보면서 가톨릭에 호감을 느끼며 "나도 살라마처럼 장례를 치르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살라마 본인의 삶은 참으로 기구하였지만, 하느님께서 그녀를 선교지의 교회와 신앙에 '귀중한 머릿돌'로 쓰시는 것을 보며 신자들 모두가 감사하고 놀라워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돌아봄이 어떠할까요?

고통은 목적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체험하는 고통의 모든 단계를 겪으셨기에 우리는 홀로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길을 가신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통의 길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다. 고통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 고통은 예수님의 수난처럼 목적이 있다.

안셀름 그륀, 『내면의 샘』

실천 한 가지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위대한 행위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 미우라 아야코

미카 7,14–15.18–20 / 루카 15,1–3.11ㄴ–32.

03/14 정의로운 하느님 VS 자애로운 하느님

말씀 길라잡이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자애로운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 안에서, 특히 교우들 사이에서 하느님의 정의로운 모습을 좋아합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마치 하느님처럼 판단하고 심판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상대방을 용서해야 할 상황에서는 자비로운 하느님의 모습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로 상처를 줄 때는 상대방이 자비로운 하느님의 모습을 닮기를 원하며 때로는 강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하느님의 모습을 선택하고 강요한다면 우리는 과연 올바른 하느님을 믿는 것일까요? 하느님은 늘 정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데, 우리의 관심사에 따라 하느님을 정의롭거나 혹은 자비롭게만 만든다면 이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우 관계나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하느님을 찾고 있을까요?

우리가 찾는 하느님

우리가 찾는 하느님은 부자와 힘 있는 사람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나윔(anawim), 즉 작은 사람들을 향해 가는 특별한 길로 이끄시는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분은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시는 분으로, 문둥이를 안으면서도 움츠리지 않으시고 길을 잃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시는 하느님이다. 우리가 마음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차츰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바오로가 자신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힘'이 자기에게서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특별한 자랑'으로 여기는 것과 흡사하다.

메리 다피츠, 『정오에서 해질녘까지』

실천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이웃의 좋은 점 한 가지를 예수님의 눈으로 발견해 봅니다.

정의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만, 자비는 죄를 범한 사람의 구원을 추구한다. / 존 바우더

탈출 17,3–7 / 로마 5,1–2.5–8 / 요한 4,5–42 또는 4,5–15.19ㄴ–26.39ㄱ.40–42.

03/15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말씀 길라잡이

선교지에서는 물도 귀하지만, 바다가 가까워 물속에 염분 함량이 높습니다. 현지인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저에게 그 물은 꼭 옅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가정 방문이나 공소를 다녀오면 타는 듯한 갈증이 물을 마셔도 가시지 않습니다. 전기라도 있어 시원한 물을 마신다면 그나마 좀 낫지만, 실온의 물은 저의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길 물을 좀 데워 마시면 갈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에 더운물을 마시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해결책이 바로 시원한 콜라입니다. 시원함은 더위를 가시게 하고 탄산은 목을 넘어가면서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한동안 콜라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갈증을 느끼지 않을 '영원한 생명수'를 예수님께 청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수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만약 갈증조차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속의 샘을 찾아

유익한 의식(儀式)은 기도나 전례, 가정에서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과 같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행사를 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을 통해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자신만을 위한 '거룩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거룩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루의 나머지 시간도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거룩한 시간을 보내면 무엇보다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유익한 의식을 거행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마음속 샘을 찾은 것이며, 따라서 그는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이 샘은 우리가 기꺼이 머물며 원기를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안셀름 그륀, 『딱! 알맞게 살아가는 법』

실천 한 가지

오늘 하루 술, 담배, 커피값을 아껴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부합니다.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 잠언 4,23

2열왕 5,1-15ㄷ / 루카 4,24ㄴ-30.

03/16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말씀 길라잡이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지만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목하는 수녀님들과 "이곳 선교지는 늘 새로움으로 가득 차서 결코 지루하지 않다."라고 웃으며 이야기하곤 합니다. 처음 접하는 가톨릭이기에 이곳 사람들은 신자든 아니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호기심을 보입니다. 때로는 칭찬을, 때로는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에 일일이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선교지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집가면 벙어리 삼 년, 귀머거리 삼 년'을 살아야 했던 우리네 어머니들, 할머니들의 애환처럼, 선교사들도 때로는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복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고향 사람들 가운데를 묵묵히 가로질러 다른 곳으로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더욱 멋져 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느님 아버지와의 일치 속에서 자신의 사명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가진다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느님에 대한 나의 알량한 지식과 편견이 오히려 그분과의 만남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부드러운 바람처럼 성령을 통해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유경촌, 『사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선물』

실천 한 가지

10분 동안 TV를 끄고 저녁 기도를 바칩니다.

너희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분을 바라보라. / 앤소니 드 멜로

다니 3,25.34-43 / 마태 18,21-35.

03/17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얼굴을 찾습니다

말씀 길라잡이

선교지의 공소는 선교사가 상주하는 본당보다 상황이 더욱더 열악합니다. 제대로 된 성당도, 제대도, 의자도, 미사를 위한 도구들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학교 교실이나 흙으로 지어진 허름한 건물 혹은 나무 밑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교리를 배웁니다. 또한 이 미사를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경외하기 위해, 하느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제로서의 마음가짐에 소홀함이 없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물도, 어설프게 꾸며진 제대도, 그들의 어설픈 교리 지식도 하느님의 눈에는 소중한 예물이며, 훌륭한 제대며, 당신을 향한 열정으로 보일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좋은 환경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떨까요?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자

공소가 3개나 되는 작은 시골 성당에 부임한 저는 관례대로 한 달에 한 번 나환우 교우들이 모여 사는 공소로 미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느끼는 교우들의 냉소와 차가운 시선에 의문을 가지던 중 저의 방문이 그동안 그 마을을 다녀갔던 다른 많은 사람의 일회성 홍보용 행사나 일과 다를 바가 없었음을 알고, 한 달에 한 번 가던 공소 미사를 매주 갔으며 마지막 주에는 공소가 아니라 본당에 나환우들이 직접 오도록 해 그들과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사 후에 매번 커피를 마시고 점심도 같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본당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신부에게 휴대 전화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씬부님, 싸랑합니다. 항상고맙듭니다." 모르는 번호고 글자도 맞춤법도 틀리고 해서 무시했던 저는 공소 자매로부터 그 문자가 저에게 마지막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던 형제가 보낸 것임을 들었습니다. 그 형제는 한센인 중에서도 양손에 증상이 있어 손가락이 없는 사람으로 제게 그 문자를 보낼 때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려 보냈을 지가 미루어 짐작되어 지금도 그 문자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ssp, 『성당지기 이야기』

실천 한 가지

가족과 이웃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의 장점을 칭찬해 줍니다.

아프도록 사랑하면 아픔은 없고 더 큰 사랑만 남는다. / 콜카타의 성녀 데레사

신명 4,1.5–9 / 마태 5,17–19.

03/18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 길라잡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며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당신 법의 영원불변함을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 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들은 하느님의 법을 좀 더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세부 규칙들을 세우다 결국에는 지키기 힘들 정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본당 공동체에서도 여러 해 동안 많은 행사나 일을 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세웠던 규칙들이 어느새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창의적인 의견이나 새로운 변화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늘 이렇게 해 왔어!"라는 말을 하며 공동체 내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신앙을 증진시키고 뜻을 함께 모아야 하는 본당 일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러한 '전통(?)'을 다시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전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당이나 삶의 자리에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도원의 고양이

어느 수도원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마다 고양이 때문에 도무지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장자인 수도자가 평소에는 놓아기르던 고양이를 기도 시간만 되면 성당 옆 기둥에다 묶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가 그 노수도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고양이는 기도 시간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들어온 수도자들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얼마 뒤 고양이는 수명이 다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젊은 수도자들은 다른 고양이를 구해다가 기도 시간만 되면 그 기둥에 묶어 놓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며 수도자들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이러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규정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형식의 틀에 사로잡혀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하는 로봇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재호, 『2013년 9월 매일미사』

실천 한 가지

오늘 하루 이주민과 난민들을 위한 지향으로 선행 한 가지를 실천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느님의 개입이 있을 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물러서는 사람이다. / 이냐시오 드 라 포테리

2사무 7,4–5ㄴ.12–14ㄱ.16 / 로마 4,13.16–18.22 / 마태 1,16.18–21.24ㄱ 또는 루카 2,41–51ㄱ.

03/19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말씀 길라잡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나자렛 성가정을 지킨 요셉 성인은 아프리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남자 단체(CMA: Catholic Men Association)는 성 요셉을 본받아 자신들의 가정을 성가정으로 만들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서로 도움을 주는 단체입니다.

제가 있는 선교지에서는 주로 어머니들이 가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비를 구하거나 끼닛거리를 찾고 밭을 일구는 모든 일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보면 아버지가 사라져버렸거나, 술에 절어 살거나, 아니면 이미 두세 명의 아내가 있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 요셉을 주보성인으로 모시는 남자 단체는 남자 교우들 그리고 남자 예비 신자들을 올바른 가장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본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 요셉 대축일을 맞이하여 모든 아버지가 성 요셉을 닮아 성가정을 이루며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충실한 양부이시며 보호자이신 성 요셉

하느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 다음과 같은 일반 법칙에 따라 하십니다. 즉 특별한 은총을 주시려고 또는 특별한 위치에 올리시려고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 그 사람에게 자기 직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베푸십니다. 이러한 법칙은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부이시며 세상과 천사들의 여왕의 참된 배필이신 성 요셉에게 훌륭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요셉을 당신의 가장 고귀한 보화이신 외아드님과 성모님의 부양자와 보호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직분을 충실히 완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착하고 충실한 종아, 네 주인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 사제의 강론에서, 『성무일도 제2권』

실천 한 가지

성 요셉의 겸손과 믿음을 본받으려는 결심을 하며 '성 요셉 성월 기도'를 바칩니다.

참으로 순명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차별하지 않는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주어진 것은 무엇이든 충실하게 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 성 베르나르도

호세 14,2–10 / 마르 12,28ㄱㄷ–34.

03/20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밖에 다른 이가 없다

말씀 길라잡이

하루는 선교지 마을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리를 지어 움직이며 웃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탄자니아의 유명한 무당이 한 주민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전통 종교가 관습을 지배하는 지역이라 우리 신자들과 예비 신자들도 그곳에 갔습니다.

호기심에 구경 갔던 이들도 있고, 혹시나 그곳에 있지 않으면 자신이 저주를 부른 사람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그곳에 갔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주일 미사 공지 사항 때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세례 때 마귀와 그의 거짓 힘을 끊어 버린다고 하느님께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도 아직 부족합니까? 다시는 구경도 가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마세요!" 그들은 마지못해 "예!"라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기존의 생각과 관습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나 봅니다. 오직 하나의 방법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들이 삶에서 강력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현존 체험만이 그들을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묵상해봅시다.

변화

변화란 어떤 의미에서 '자유'를 찾는 것이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박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갈망해야 한다. 그러므로 변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변화하고자 하는 갈망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때 변화의 실마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며, 그 만남이 불러일으키는 믿음이다. 예수님을 만나 하느님과 이웃 앞에 살아 있는 한 인격으로 바로 서는 것, 거기에 변화와 자유 회복의 길이 있다.

한민택, 『하느님과의 숨바꼭질』

실천 한 가지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몸으로 공기를 느끼는 것처럼 마음으로 하느님을 깨닫는다. / 조셉 주베르

호세 6,1–6 / 루카 18,9–14.

03/21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말씀 길라잡이

제가 신학생일 때 감명 깊게 들은 한 이탈리아 수녀님의 나눔입니다. 수녀님은 아프리카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외국인 노동자 사목'을 하고 있지만, 늘 자신의 자리는 '아프리카'지 이곳 '이탈리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수녀님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몸 파는 아프리카 여성'이 흐느끼며 수녀님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취업을 빌미로 많은 아프리카 여성들을 데려와 강제로 몸을 팔게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여성 역시 그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수녀님은 그 여성에게 지금이 퇴근 시간이고 미사 참여하러 성당에 가야 하니 다음 날 다시 오라고 말하고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자신도 성당을 가고 싶다며 수녀님을 졸졸 따라나섰습니다. 누가 보아도 몸 파는 여성임이 분명한 이 여성과 수녀님이 한 우산 밑에 나란히 걸으니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성당 입구에서 수녀님은 맨 앞자리로 가서 앉고, 그 여성은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사 시간 내내 수녀님의 머릿속에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가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미사를 마치고 그녀를 찾았지만,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가운데 수녀님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가엾은 애는 어디 있느냐?'고 끊임없이 수녀님에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녀는 다음날 다시 사무실에 찾아왔고, 수녀님은 그때부터 불법으로 팔려온 아프리카 여성들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사관과 정부의 도움으로 많은 여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게 도왔다고 합니다. 수녀님은 그 여성을 통해 이탈리아에서 제2의 소명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삶 안에서 '흐느끼며 우는 많은 세리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분에 넘치게 사랑하신다. 그분은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신다. 여기에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에게 유익한 사랑이 있다.

파올로 스퀴차토, 『불완전한 나에게』

실천 한 가지

가족과 이웃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의 장점을 칭찬해 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상이고 무제한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1사무 16,1ㄱㄹㅁㅂ.6–7.10–13ㄴ / 에페 5,8–14 / 요한 9,1–41 또는 9,1.6–9.13–17.34–38.

03/22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의 태생 소경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랜 고생과 힘듦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됩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통해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해방은 하느님의 날, 모든 것을 쉬게 하여 살리는 날에 이루어져 보다 뜻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에 바리사이들은 하느님의 날에 증오와 배척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여 스스로 어둠 속에 갇혀 버리는 눈먼 이의 삶을 선택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태생 소경은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지만, 예수님 때문에 바리사이들은 선물 받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례성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초를 받습니다. 대부모와 세례 받는 이는 이 빛이 꺼지지 않고 늘 타오르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기심과 욕심, 그리고 편견이 가득할 때, 우리는 이 빛을 잃게 되어 우리 삶 안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사순 시기 동안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써, 우리도 오늘 복음의 태생 소경처럼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아름다움이란

아름다움은 대개의 경우 즉각적인 달콤함이나 만족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에누리 없이 요구되는 값비싼,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인간성과 자신이 마주하는 이의 인간성을 가치 있게 해주는 수고를 통해 이해되고 체험된다. 예를 들어 가난한 이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행위를 하기 위해 다른 이 앞에 무릎을 꿇는 이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존엄성과 정체성을 표현해주기 때문이다.

아메데오 첸치니, 『소명, 아름다움으로의 초대』

실천 한 가지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한 끼 단식하고 봉헌합니다.

혼자서 빛을 발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밝히는 빛이 되어라.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이사 65,17-21 / 요한 4,43-54.

03/23

'즐거움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말씀 길라잡이

처음 선교지로 발령을 받았을 때, 열악한 환경에 힘들어서 저를 이곳으로 보낸 장상 신부님을 무지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제대로 준비를 해서 보내든지! 지원이라도 빵빵하게 해 주든지! 날 이렇게 내팽개쳐 두다니!' 이런 마음으로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1독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선교지)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선교사)을 기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은 흔히 처음엔 선교지에 대해 불평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에 빠진다고 합니다. 저도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순수하고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는 이곳에서 더 편하고 기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선교사 생활이 너무나 풍성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저를 선교지로 보낸 전 관구장 신부님을 만났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처음으로 사라지고 그 신부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힘든 선교지였지만 신부님 덕분에 저의 선교사 생활이 너무 풍성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활짝 웃으시면서 "잘 참고 버텨 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간혹 힘들고 어렵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즐거움과 기쁨이 창조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기쁨

즐거워하는 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끄는 것이고, 하느님의 바람은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이 기쁨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기쁨이다.

그레고리 보일, 『덜 소중한 삶은 없다』

실천 한 가지

내가 가진 많은 것을 생각해 보고 감사드립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변화를 향한 길입니다. 고통 없이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 베네딕토 16세 교황

에제 47,1-9.12 / 요한 5,1-16.

03/24

생명의 물

말씀 길라잡이

이곳 선교지에 오기 전에 저는 '물'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듯 늘 제 주위에 물이 있어서 불편 없이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는 늘 물이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국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가 있기 전, 지방정부가 마을 공동 지하수에서 마을 곳곳으로 보내는 수도 파이프와 물을 길을 수 있는 장소를 건설하였습니다. 덕분에 마을 주민들은 물을 긷기가 훨씬 쉬워졌지만, 잦은 펌프 고장과 정전으로 이마저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이야 그래도 근처에서 물을 길을 수 있지만, 숲속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이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야말로 낭패입니다. 물을 긷는 비용도 많지만, 마음 놓고 쓰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음식은 나눌 수 있지만, 물은 나누기 전에 두세 번 생각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들은 비가 오면 너무 행복해합니다. 물을 마음 놓고 쓸 수 있기에…. 비 온 뒤엔 늘 비포장도로 옆에 파인 웅덩이에서 그리 깨끗하지 않은 물을 긷는 이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들에겐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육신을 위한 물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한 물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물은 주님에게서 나오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명이 솟아납니다. 주님 안에 머물며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합시다.

참 생명이란

마음의 눈이 기도의 빛으로 일단 밝아지게 되면 우리 자신의 영혼 안에 쓰라림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되고 하느님의 영 안에서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의지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 그분의 의지 자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참 생명이란 주님의 의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의지와 잘 맞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유익하고 우리의 갈망에 더욱 훌륭히 응답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생명을 보전하는 데에 쏟는 관심과 똑같은 정도의 관심을 주님의 의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쏟아야 합니다.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의 강론에서, 『성무일도 제3권』

실천 한 가지

쉬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을 기억하며 평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희망하는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 성 십자가의 요한

이사 7,10–14; 8,10ㄷ / 히브 10,4–10 / 루카 1,26–38.

03/25

당신의 응답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의 모습을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는 그의 저서 『동정 성모께 대한 찬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천사는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동정녀여, 속히 응답하소서. … '말'을 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으소서. 인간의 '말'을 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하소서. 일시적인 '말'을 하시고 영원한 '말씀'을 받으소서."

성모 마리아의 "예"라는 완전한 순명으로 세상에 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예"라고 응답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한 처녀가 응답하면서 마침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시게 되었고, 동정녀는 가장 거룩한 감실이 되었습니다.

세상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의 응답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매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는, 성모 마리아처럼 우리의 "예"를 응답하며 참되고 신실한 감실이 되도록 합시다.

믿음

믿음은, 우리가 아직 하느님의 원수이고 불경한 자들이었을 때 먼저 우리를 만져주신 분을 만지게 해 준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만져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을 만질 수 없다. 하지만 하느님 은총은 언제나 우리를 앞질러 다가오므로 하느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미 다가오신 그분께 응답하는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봐준 하늘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미 주어진 사랑에 '예'라고 말하는 것이다.

파올로 스쿠차토, 『불완전한 나에게』

실천 한 가지

주님을 모든 사람 위에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오늘 하루 화살 기도를 자주 바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이 하나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 비트겐슈타인

탈출 32,7-14 / 요한 5,31-47.

03/26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말씀 길라잡이

선교지의 조그마한 마을도 한국처럼 많은 개신교 종파들이 보다 많은 신자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마을에 들어왔을 땐, 이미 5개의 개신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보기에 가톨릭은 별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톨릭은 땅만 있지 아무런 건물도 없고, 주일 미사도 근처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서 하며, 신자라곤 아이들과 청소년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가 그러하듯 가톨릭은 선교와 더불어 주민들의 삶이나 권리의 증진, 교육, 의료 사업 등을 함께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눈에 가톨릭은 개신교와 뭔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와 그들과 함께하고, 살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인 많은 이들이 성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아버지께서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 더 큰 증언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묵묵히 하느님과 교회의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증언하게 됨을 확연하게 느낍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 안에서 묵묵히 예수님을 증언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추운 밤에 거리의 노숙자를 만났을 때 그를 골칫거리, 게으름뱅이, 길을 막는 걸림돌, 양심을 찌르는 가시, 정치인이 풀어야 하는 과제, 심지어 공공장소를 어지럽히는 쓰레기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과 사랑으로 그에게 응대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그 사람을 자신과 똑같이 존엄한 인간, 아버지께 무한한 사랑을 받는 피조물, 하느님의 모상,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형제자매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98항』

실천 한 가지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인류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작은 일에 충실하고 기쁘게 해내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신다. / 김용은

지혜 2,1ㄱ.12–22 / 요한 7,1–2.10.25–30.

03/27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말씀 길라잡이

가끔 악한 생각을 품은 이들은 가톨릭을 돈 많은 단체로 여기며 쉽게 그 돈을 취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들에게 외국인 선교사는 '돈'으로 보여, 물건을 사도 외국인 가격을 적용하곤 합니다. 선교지에서는 신선한 고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염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직원이 사색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 염소들이 옥수수 밭에 들어가 새로 나온 싹을 조금 먹었는데, 밭의 주인이 염소를 볼모로 잡고 터무니없이 높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저녁 미사를 마치고 신자 한 분과 협상을 하러 가는데, 우리 직원이 파출소로 출두하라는 편지를 들고 제게 왔습니다. 난생처음 파출소로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파출소에서도 원만한 타협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 소장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는 들어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더니 대뜸 그 밭의 주인에게 "가톨릭 교회가 우리 마을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데 신부님을 파출소로 부르냐?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로 교회를 고발하면 내가 너를 처벌할 것이야!" 하며 야단을 쳤습니다. 덕분에 협상이 빨리 끝나 염소를 찾아서 나왔습니다. 돈을 쉽게 벌려는 밭 주인의 선하지 않은 마음이 오히려 그에게 덫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한 선이신 하느님을 믿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써 이겨내도록 합시다.

맡기고 기다리십시오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천국을 체험하게 합니다. 좁쌀처럼 자잘한 사람이 하느님으로 보일 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기쁨을 앗아가는 원수 같은 사람이 하느님으로 보일 때 우리는 천국의 경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물의 외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안에 창조주 하느님께서 숨어 계십니다. 씨앗은 저절로 자랍니다. 사물을 억지로 지배하려 들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다스리게 놔두십시오. 하느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십시오. 하느님께 맡기고 기다리십시오. 행복은 자기 힘으로 억지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민, 『손 내미는 사랑』

실천 한 가지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따뜻한 격려는 지친 영혼에 공급하는 청량제와 같은 것이다. / 구전 속담

예레 11,18–20 / 요한 7,40–53.

03/28

메시아가 갈릴래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말씀 길라잡이

"여기가 아프리카(케냐) 아니냐!"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이 말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도 될 때가 있고, 된다고 확신했던 일이 안 될 때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한 기준 없이 그냥 체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가끔은 빠른 포기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이 나라를, 이 나라 국민을 규정짓는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들의 좋은 점들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일부 군중들과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갈릴래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예수님의 진면목을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진리로 나아가는 데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길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선입견과 편견으로 판단하며 스스로 걸림돌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심판의 판정

어느 날 꾀꼬리와 뻐꾸기는 노래를 누가 더 아름답게 부르는지 시합을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심판을 볼 동물이 당나귀밖에 없었다. 꾀꼬리가 먼저 노래를 불렀다. 아름다운 노랫가락이 숲속으로 울려 퍼지는 동안 당나귀는 기다란 귀를 쫑긋거리며 멍청한 표정으로 눈만 껌벅거렸다. 다음은 뻐꾸기가 두 음절의 짤막한 노래를 반복해서 불렀다. 그러자 별안간 당나귀가 심판다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노래는 당나귀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뻐꾹, 뻐꾹 소리는 히잉, 히잉 소리와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나귀가 뻐꾸기를 더 훌륭한 가수로 판정한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었다. 심판을 맡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한정된 지각 능력과 선입관, 우리가 지닌 다양한 수준의 무지를 바탕으로 판정을 내린다.

프랭크 미할릭, 『느낌이 있는 이야기』

실천 한 가지

오늘 하루 불평할 일이 생기면 화살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느님의 빛을 보려면 너의 조그마한 촛불을 꺼라. / 플러

에제 37,12ㄹ-14 / 로마 8,8-11 / 요한 11,1-45 또는 11,3-7.17.20-27.33ㄴ-45.

03/29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말씀 길라잡이

'부자와 라자로의 예화(루카 16,19-31)'에서 부자는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아브라함에게 라자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어 회개시켜줄 것을 마지막으로 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라자로를 소생시키십니다. 그러나 이 큰 기적을 보고서도 유다 지도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 것을 막는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은 완고함, 편견, 이기심, 욕심이라는 육중한 돌에 막혀 무덤 안에서 부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자로를 소생시키신 주님께서는 더 큰 뜻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자신을 가두고 있는 편견, 이기심, 욕심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잘 익은 참외처럼

밭에서 참외를 따면서 보고 느낀 건데요. 덜 익은 것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더라고요. 잘 익은 것은 이미 줄기에서 떨어져 있거나 손에 힘을 살짝만 줘도 금방 떨어졌거든요. 자연의 이치를 보면 저절로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지요. 무엇엔가 집착하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잘 익은 참외처럼 우리들도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나 서로 양보하며 살아야겠어요.

윤해영, 『희망의 속삭임』

실천 한 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나누어 줍니다.

사랑을 더럽히는 온갖 것들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성덕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다니 13,1-9.15-17.19-30.33-62 또는 13,41ㄷ-62 / 요한 8,1-11.

03/30

자기 삶의 자리

말씀 길라잡이

오늘의 제1독서를 읽을 때마다 신학생 시절에 있었던 복음 나눔이 생각납니다. 한 동료 신학생이 대뜸 "노인네가 나이 들어서 주책이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 못하는 걸 보니 노망이 났네." 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장난 같지만, 저에게는 신선한 복음 나눔으로 다가왔습니다. 꼭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 어느 세대건, 사회의 어느 지위에 있든 당연히 해야 할 일과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학생으로서, 사제로서, 수도자로서 그리고 평신도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1독서의 악한 원로들처럼 음욕을 품어서도, 양심을 어겨서도, 누명을 씌워서도 안 되며 무엇보다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수산나처럼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차라리 악인의 덫을 선택하여 의롭게 죽는 일을 택하는 것, 그리고 다니엘처럼 정의감과 용기를 가지고서 그릇된 일에 목소리를 높여 억울한 이를 대변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사순 시기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시선에 동참하는 법

십자가 위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성부와 일치하셨던 그리스도를 관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시선에 동참하는 법을 배웁니다. 죽음조차도 환히 비추어지며, 신앙을 향한 최종적인 초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죽음은 성부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네 고향을 떠나라."(창세 12,1), "오너라."라는 마지막 초대의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건너감의 순간에도 성부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께 자신을 맡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신앙의 빛, 56항』

실천 한 가지

오늘 하루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고통받으실 수 없지만, 함께 고통을 겪으실 수는 있다. / 성 베르나르도

민수 21,4-9 / 요한 8,21-30.

03/31

당신이 누구요?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에서 유다인들은 도무지 알 수 없고 신성 모독에 가까운 말을 하는 예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당신이 누구요?" 제가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은 심각한 가뭄이 들어 많은 이들이 기아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도회의 '긴급 식량 배급과 의료 지원 프로젝트'가 들어와 마을 이장과 지도자들과 함께 독거노인들, 가난한 이들, 병자들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학교를 위주로 옥수수, 쌀, 콩 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식량을 나누어주는 장소에는 늘 사람들로 붐비었습니다. 분명히 명단에 이름이 없는데 식량을 나누어달라고 떼를 쓰기도 다반사였습니다. 지역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의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으로 이동 진료도 다녔습니다. 덕분에 짧은 시간 동안 가톨릭과 저는 그 지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 자신의 신원에 혼란이 왔습니다. 선교지에 '사회 복지사'로 온 것인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온 것인지? 아마도 예수님께서 저를 보내셨고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고 마음을 조급하게 먹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한다면, 선교지 또한 하느님께서 당신의 방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하면서 눈앞의 성과만 생각하며 마음을 조급하게 먹는 것은 아닌지 살펴봅시다.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

인파 속에서 이리저리 떠밀려 갈 때 사람들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럴 때는 인파 속에서 빠져나와 건물 계단에 올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인생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군중을 피해 나무 위로 올라간 자캐오처럼, 날마다 — 특히 아침에 — 몇 분 짬을 내어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프랭크 미할릭, 『느낌이 있는 이야기』

실천 한 가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 반 투안

다니 3,14-20.91-92.95 / 요한 8,31-42.

04/01 주님의 자리

말씀 길라잡이

신학생 때의 일입니다. 신학원장 신부님과의 면담 중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시간이 많아 책을 읽거나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나요?" 신부님의 답변은 "아니요"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 파견을 받아 일하다 보니 그 답변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금세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쉼 없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쉼 없이 일을 하다가 문득 저의 기도 생활이 나태해짐을 느낍니다.

하느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과연 제 안에 하느님이 계신가? 예수님께서 이런 저에게 불평하시는 듯합니다. '네 안에 내 말이 있을 자리가 없구나.' 놀란 마음에 먼지 덮인 성무일도서를 펴들고, 손에 묵주를 돌리며 성체 앞에 앉아봅니다.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주님의 자리'가 넉넉하길 기도합니다.

하느님 현존의 공간

현재의 순간은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시간이다. 하느님은 영원한 현재이시다. 오직 매 순간을,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 주시는 공간인 하느님 현존의 공간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믿음으로 함께하는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킨다.

자크 필립, 『내면의 자유』

실천 한 가지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 기도를 바칩니다.

오, 예수여!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나는 오늘밖에 가진 것이 없나이다. / 성녀 소화 데레사

창세 17,3–9 / 요한 8,51–59.

04/02 너와 맺는 영원한 계약

말씀 길라잡이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영원한 계약을 맺고 복을 빌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례성사를 통해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과 그 계약을 갱신하십니다.

유아 세례가 있는 날이면 꼭 한두 명의 부모들이 자녀의 세례명 때문에 교리 교사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유아 세례 교리 때 아이의 세례명을 어떻게 짓고 부모와 대부모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함을 이야기하지만, 고집 센 부모들이 늘 있습니다. 성인들의 이름이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당시 유행하는 이름이나 부모들이 좋아하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떼를 씁니다. 가끔은 세례 받기를 거부하고 다른 성당을 찾아가곤 합니다. 이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느님께서 맺고자 하는 영원한 계약과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유아 세례를 백일잔치나 돌잔치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세례 때 맺은 계약은 매 미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계약을 갱신하는지 돌아보도록 합시다.

세례 받고 파견된 이들

우리가 하느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교회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느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맺는 친교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생명은 팔려고 내놓은 상품이 아니라 내어 주고 전달하며 선포할 보화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2019년 전교 주일 담화』

실천 한 가지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이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 노력해 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로 오시는 하느님의 출입문이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출입문입니다. / 베네딕토 16세 교황

예레 20,10-13 / 요한 10,31-42.

04/03 내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말씀 길라잡이

오늘 제1독서는 예언자 에제키엘을 통해 하느님의 법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느님의 분노를 보여 줍니다. 선교지의 신자들도 주일을 지키는 것을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성당이 멀기도 하지만 '밭에 가야 한다' 혹은 '염소와 소에게 풀을 먹이러 가야 한다' 등 다양한 이유로 오지 않거나 늦게 옵니다. 특히 장례식이 있는 날이면 주일 미사 참석자 수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장례식은 토요일인데 왜 주일 미사에 빠지나?"고 물으면 "밤새 유족들을 위로하느라 잠을 못 잤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사의 중요성, 특히 돌아가신 영혼을 위한 미사와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에는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죽었을 때, 많은 신자가 여러분의 장례식에는 참석하지만,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일 미사에 오지 않아 당신의 영혼은 기도와 미사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멋쩍은 듯 웃음으로 답합니다.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직도 의무로만 느껴집니까? 아니면 미사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한 주일을 살아가기 위한 양식을 얻기 위해 가십니까?

거룩히 지내는 주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미사에 참례하여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몸을 쪼개고 비우며 없애기 위해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주일 미사에 꼬박꼬박 참례하여 성체를 모신다 해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쪼개고 녹이지 못한다면, 주일을 거룩히 지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민, 『손 내미는 사랑』

실천 한 가지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거룩한 미사는 지상에 있는 나의 하늘나라이다. / 성 라우렌시오

에제 37,21ㄴ-28 / 요한 11,45-56.

04/04 아이들의 자랑거리

말씀 길라잡이

가정 방문을 다니다 보면, 만나는 아이들 가운데 성당에 나오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당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저를 '치나(중국인)' 혹은 '무중구(백인)'라 부르고, 반면에 성당에 나오는 아이들은 저를 '신부님' 혹은 '파더 리(Fr. Lee)'라고 부릅니다. 한 가정을 축복하고 다른 가정으로 옮겨갈 때면, 아이들은 늘 호위 무사를 자처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제가 '신부님'임을 인식시킵니다. 그들에게 저는 자랑거리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아이들의 시각에서 다른 개신교 목사들은 옷도 허름하게 입고 걸어서 다니며 아프리카 사람인데, 저는 외국인이고 멋진 차(?)도 가지고 있으며 옷도 깨끗하고 깔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아이들은 자신들의 신부님을 자랑거리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혹시 하느님의 자녀임을, 가톨릭 신자임을 숨길 때는 없습니까? 오늘 제1독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봅시다.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교 신자

학교에서 한 여선생님은 여러 차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나쁘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 수업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자유가 없었다. 어느 날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슬람에 대해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나는 질문할 것이 없었다. 내 짝이 내게 왜 말이 없는지 물어,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를 경멸스럽게 바라보더니 자리를 바꾸었다. 다음 날 학교 버스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집에 가야 했다. 그 친구는 차표를 살 돈이 없었다. 그녀는 회교도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여분의 돈이 없었다. 나는 가진 돈으로 그 친구의 차표를 사 주었다. 그녀는 내게 했던 행동에 대해 용서를 청했다.

도리아나 잠보니, 『일상에서 만나는 하느님 손길』

실천 한 가지

대청소로 성주간과 부활을 준비합니다.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에는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 / 콜카타의 성녀 데레사

온유함

- J. 갈로

연약함이 아닌 온유함
격한 내적 감정을 지배하는
사랑의 힘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신을 잊고 이웃을 섬기며
스스로 낮추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온통 자기 것에만 정신이 팔려
이웃의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며
스스로 삼갈 줄 알고
이웃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자유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그의 마음속에 있는 선과
하느님 은혜의 역사를 신뢰하며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지나치게 예민하고
감정에서 우러나는
값싼 동정이 아니라
참 온유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웃의 작은 필요와 바람을 알아 채워주는
섬세함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악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싸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관용을 배우려는 소망을
제 안에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사순 시기는 예비 신자들에게는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며, 신자들에게는 자신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보속을 통하여 어느 때보다 더 큰 열성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여 파스카(부활)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가운데 사순 시기의 마지막 주간을 '성주간'이라고 한다.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깊게 묵상하고 체험하는 시기로 주님 수난과 부활을 성대한 예식을 통하여 기념하고 재현하며, 전례 주년의 중심이자 절정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구원과 신앙의 핵심을 기념하므로 한 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전례가 거행된다.

유래

성지 주일은 성지를 갖고 성당에 들어가는 장엄한 행렬 예식을 거행한다. 일찍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을 '팔마(Palma, 성지) 주일'이라고 하였다. 4세기경부터 예수 부활 한 주 전 주일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성대한 행렬'을 하였다. 여기에서 동방 교회로 이 행렬 예식이 널리 퍼져 나갔다. 반면 서방 교회는 5세기경 이 마지막 준비 주일을 수난 주일이라고 하여 '수난 복음'을 봉독하였다. 9세기에 와서 이 두 가지 전통이 합쳐져서 팔마(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행렬을 하며, 수난 복음을 듣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 정착되었다.

1956년 예식서부터 팔마를 들고 행렬하는 예절이 미사 전에 거행되기 시작하였다. 나뭇가지를 축복하여 들고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였던 환영을 의미한다. 곧 구세주로 세상 구원을 위해 오시는 분에 대

한 환영의 환호성이다. 미사 중에는 수난 복음을 낭독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서 알리는 예고이다. 따라서 이날 전례의 특징은 환호(호산나, 기쁨)와 수난 예고(수난 복음, 슬픔)의 교차이다. 성지 주일의 미사 전례에서 특이한 부분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입당식'과 미사 중 입체낭독으로 하는 '수난 복음'이 있다.

미사 전례

예루살렘 입성 기념은 명칭대로, 주님께서 바로 이날 군중의 환호 속에 수난과 영광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음을 기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행사가 아니라 그 내면적 의미, 곧 주님과 함께 수난의 길로 들어가고 수난을 통해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데 있다. 따라서 입성식은 수난 시기에 들어가는 관문이라 할 수 있다.

1. 준비

본당 공동체가 모이는 교중 미사에서 '성대한 입당'을 거행한다. 여기에서는 성당 밖 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례자가 붉은색 제의나 카파를 입고 봉사자들과 함께 입장한다. 붉은색은 수난, 순교, 사랑을 나타낸다. 이날의 붉은색은 사랑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목숨을 바치시는 주님의 수난기로 들어감을 표시한다.

2. 주례자 입당

사제가 신자들이 모여 있는 집회 장소로 가는 동안 모든 이는 따름 노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마태 21,9) 또는 적절한 성가를 부른다.

3. 인사와 권고

사제가 집회 장소에 도착하면 먼저 보통 때와 같이 인사한다(미사의 시작 인사). 이어 사제는 이날 전례의 의미와 능동적 참여를 일깨우는 권고를 한다. 권고는 입성의 의미, 곧 주님을 따라 수난을 통해 부활에 다다른다는 것을 강조한다. 권고는 짧고 명료해야 한다.

4. 성지 축복

이어, 성지를 축복하는 기도를 바치고 성수를 뿌린다. 성지는 원래 종려 · 올리브 나무 외에 다른 나뭇가지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측백나무나 향나무 가지 등을 사용한다. 나뭇가지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길에 깔아놓거나 손에 들었다. 여기서 중심은 성지가 아니라 행렬을 통해 드러나는 메시아이자 왕이신 주님께 대한 신앙이다. 축복 기도는 영원한 생명과 희망과 승리의 표지로 나타나며, 두 기도문 가운데 선택하여 바친다. 이 기도는 수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실 왕이시며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그분을 따라 선행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나타난다.

5. 복음 봉독과 강론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복음 이야기(가해: 마태 21,1-11 / 나해: 마르 11,1-10 또는 요한 12,12-16 / 다해: 루카 19,28-40)를 듣는다. 복음 후에 주례자는 짧은 강론을 할 수 있다.

6. 권고와 행렬

짧은 강론을 마치면 이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기 위해 다 함께 행렬하자고 권고한다. 향을 앞세우고 성지로 장식된 십자가, 봉사자, 사제, 성가대, 신자의 순서로 성당 앞으로 행렬한다. 과거와 달리 사제가 신자들보다 앞서 행렬하는데, 이것은 사제가 십자가와 함께 주님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이른다는 자세로 행렬한다는 의미를 일깨워준다.

7. 미사

미사는 본기도부터 시작하며, 미사의 주제는 앞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수난'이다. 참된 승리는 수난을 통해서 이뤄진다는 파스카의 신비를 가리킨다. 독서는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이사 50,4-7)와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해 주는 필리피서(2,6-11)를 듣는다. 이날 예절의 절정은 공관 복음의 수난기를 3년 독서 주기에 따라 봉독하는 것이다. 수난 복음은 봉독할 때 촛불, 분향, 인사, 십자 표시 없이 단지 복음 이름만 말할 뿐이다. 왕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표지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수난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것들을 생략하는 것이다. 이 수난기는 주님의 '죽음'에 관한 신비를 기념하는 유일한 주일 복음이다. 곧 주님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을 맞은 것은 부활로써 자신의 파스카를 완성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성지 주일은 '환영의 의미'와 '그리스도 수난의 시작'을 알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사순 시기 중에 환영과 환호의 분위기로 인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장식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성지 주일에 맞추어 푸른 나뭇가지들로 꾸미는 것이 좋다. 또한 살아 있는 나무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 수난의 십자 나무의 의미와 자연히 연결된다.

출처: 가톨릭 전례학회 엮음, 『성지 주일 · 성삼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복음 마태 21, 1–11.
이사 50,4–7 / 필리 2,6–11 / 마태 26,14–27,66 또는 27,11–54.

04/05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말씀 길라잡이

처음 케냐에 왔을 때, 성지 주일의 경험은 한국에서 차분하고 조용히 지냈던 주일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특히 성지 주일 전 토요일은 마치 소풍 가기 전날의 어린이같이 붕 떠 있는 느낌입니다. 본당은 여러 가지 준비로 분주합니다. 독서자들은 한 달 전부터 여러 배역으로 나누어서 연습해왔던 수난 복음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제의실 담당자는 제대며 본당의 곳곳을 꾸미느라 바쁩니다. 봉사자들은 성당 마당에서 성지(야자수 가지) 준비에 바쁩니다.

주일 당일, 본당에서 조금 떨어진 공터나 학교 운동장에서 성지를 축성하고 성가와 함께 행렬이 시작됩니다. 사제가 성당에 들어설 무렵, 신자들은 저마다 성지를 흔들며 성가를 더욱 힘차게 부릅니다. 특히 성지의 흔들림은 입이 벌어질 정도로 감동스럽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환호하는 군중들의 모습, 이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날만은 이후에 올 수난을 잊고 마음껏 즐기지 않았을까요?

오늘만큼은 여러분도 메시아의 오심을 환호하며 기뻐함이 어떨는지요?

파스카의 신비

우리 삶의 모든 것,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부활의 중요한 일면입니다. 우리 삶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거듭되는 좌절, 두려움, 쓸쓸함, 유혹, 실패 등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우리 삶의 긍정적인 측면들 또한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기쁨, 건강, 가족, 친구, 성공 등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모든 측면(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체험에 결합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로워리,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실천 한 가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주간 전례에 시간을 내어 적극적으로 참례합니다.

우리 주변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곧 성덕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이사 42,1–7 / 요한 12,1–11.

04/06

거친 발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을 읽으면 선교지에서 처음으로 성목요일 발 씻김 예식을 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열두 제자로 아직 예비자들인 남녀노소를 선택하면서 성당 오기 전에 꼭 발을 잘 씻고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일 저녁 예식 때, 열두 제자로 뽑힌 이들을 제대 앞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몇몇 이들은 샌들을 신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먼지투성이의 맨발이었습니다. 여분의 수건이 있었지만 잘 나누어서 써야 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발에 물을 붓고 비누칠을 하는데, 굳은살이 두텁게 박인 그들의 거친 발은 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은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들의 힘든 삶을 잘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마리아는 힘든 노동자의 삶을 살아온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며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녀의 경험은 값비싼 향유(노동자의 300일 치 임금)와 결코 비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닦아주시는 부분은 특별히 우리의 발이다.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진흙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발이다.
이는 곧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서 가장 더럽고 어두운 부분,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다는 말이다.

송봉모, 『회심하는 인간』

실천 한 가지

집에 모셔진 십자가와 성상을 깨끗이 닦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의탁이다. / 성녀 에디트 슈타인

이사 49,1–6 / 요한 13,21ㄴ–33.36–38.

04/07 가서 네 할 일을 하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두 제자의 '배반과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배반의 화요일'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유다의 배반을 읽을 때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합니다.

유명한 소설 엔도 슈사쿠의 『침묵』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화판에 나도 발을 얹었다. … 한평생 사랑하려고 했던 분의 얼굴 위에. 그 얼굴은 지금 성화판 나무 판때기 속에서 마멸되고, 움푹 파이고, 슬픈 듯한 눈을 하고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 "밟아도 괜찮다. 너의 발은 지금 아플 테지. …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 이제는 충분하다. 나는 너희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 갖겠다. 그 때문에 나는 존재하니까." … "그러나 당신은 유다에게 '가서 네 할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지금 너에게 성화판을 밟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유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이다. 너의 발이 아픈 것처럼 유다의 마음도 아팠으니까."

오늘 하루 예수님의 아픔과 연민을 묵상해봅시다.

고통을 사랑하는 법

당신은 고통을 호소하는 제게서 고통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저와 함께 앓으시며 고통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고통과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이끌기보다 저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며 고통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당신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고통을 품으며 고통을 사랑하고, 죽음을 품으며 사랑하게 합니다.

이제민, 『사랑이 언덕을 감싸 안으니』

실천 한 가지

나를 절망케 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청하며, 나 자신에게 격려의 선물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상처'입니다. / 피에르 볼프

이사 50,4–9ㄴ / 마태 26,14–25.

04/08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에서 유다는 그의 배반을 구체적 실천(은전 서른 닢)으로 옮깁니다. 존경하던 스승님을 팔아넘깁니다. 가정 방문 중에 만난 한 예비 신자는 여덟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이미 미망인인 그녀는 첫째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케냐에서는 남편이 신붓감을 데려오기 위해 신부 측에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보통 소나 염소, 아니면 현금을 지불합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내고 신부를 사 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여덟 번째 부인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둘째 부인이었습니다. 첫째 부인의 장남이 결혼하는데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아버지는 둘째 부인의 어린 딸을 나이 많은 남자에게 여덟 번째 부인으로 보내고, 그 때 받은 돈으로 장남의 '결혼 지참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인지!

이런 일이 과연 과거나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는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는 않는지요? 그리고선 미사 때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답하며 예수님을 모시지는 않는지요?

그분 자비의 눈앞에서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는 일이 많고, 또 우리 의지의 담대성이 그분의 올바른 의지를 거슬러 반항할 때 이 두 의지가 합치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하느님의 힘센 손 아래에다 우리 자신을 끌어내리고 그분 자비의 눈앞에서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며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바칩시다. "주여, 나를 고쳐 주소서. 그러면 나는 회복되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나는 구원되오리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을 고쳐 주소서. 당신께 죄를 얻었나이다."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성무일도 제4권』

실천 한 가지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미사 한 대를 봉헌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갈망하는 형상을 닮아 간다. / 토마스 머튼

탈출 12,1-8.11-14 / 1코린 11,23-26 / 요한 13,1-15.

04/09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

말씀 길라잡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사제의 직분으로 제대에서 미사를 올릴 때면 늘 흥분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청원으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 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택하신 비천한 사제의 말에 순종하시어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에 그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에 한 인간으로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제로서 성스러운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매번 미사 안에서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곳이 바로 천국

신자에게는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에서 드리지 못하는 미사 성제를 드리고 성체 축성, 영성체, 또 감실 안에 성체를 모셔 놓고 영혼들을 마음대로 찾아뵙고 모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현존을 매일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분 계신 그곳(감실)이 바로 천국이며 또 성모님이 세계 여러 곳에 계속 발현하시며 현존하심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이것이 천국의 일부, 아니 천국이라는 것을 제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춘선, 『네 신부님의 어머니』

실천 한 가지

가능한 시간에 수난 감실 앞에서 성체 조배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 사랑이 저를 기다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 성녀 바키타

이사 52,13–53,12 / 히브 4,14–16; 5,7–9 / 요한 18,1–19,42.

04/10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말씀 길라잡이

성금요일 주님 수난 예식과 십자가 경배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내일 예식을 준비하는데 한 신자가 면담을 청하였습니다. 면담의 주 내용은 복사들을 담당하는 청년 자매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 될 이가 신앙을 이유로 그녀를 떠나갔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임 신부님과 저를 찾아와 상담하였습니다. 물론 동거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미혼모로 살아가려는 그녀를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당 신자들 중에는 미혼의 임신한 자매가 복사단을 이끄는 것이 불만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면담 온 자매는 '복사단장이 아기를 낳고 다시 순결해질 때까지 당분간 미사에도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들으며 저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자매가 안타까웠습니다. 주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두의, 특히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교우가 죄인이라 성스러운 성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니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기는 하지만 죄인들을 위한 교회로, 즉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순례 중인 교회'임을,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을 실천해야 하는 교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예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만, 또는 단지 특정한 윤리 규범을 준수함으로써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가 으뜸이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남에게 해 준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 주도록 북돋워 주는 기도는 무엇보다 값집니다.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느님 은총을 우리 형제자매에 대한 헌신으로 증언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느님 마음에 들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04항』

실천 한 가지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공동체와 함께 바칩니다.

기도는 우리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 오상의 성 비오

창세 1,1–2,2 / 창세 22,1–18 / 탈출 14,15–15,1ㄱ / 이사 54,5–14 / 이사 55,1–11 / 바룩 3,9–15.32–4,4 / 에제 36,16–17ㄱ.18–28 / 로마 6,3–11 / 마태 28,1–10.

04/11

축제의 날

말씀 길라잡이

교회에는 성스러운 두 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성탄 전야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신 부활 성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참으로 성스러운 밤입니다.

선교지가 시작되었을 때, 유일한 가톨릭 신자 가정이 다른 모든 예비 신자들의 대부모가 되었습니다. 이 가정을 세례 때마다 공소로 부르는 것이 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사목 회의를 통해 일 년에 한 번 주는 세례성사를 부활 성야로 정하여 작년 부활 성야에는 모든 예비 신자들을 본당으로 모았습니다. 아침부터 마지막 교육과 주님의 기도 전달 및 리허설까지 마쳤습니다. 드디어 부활 성야 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강당(성당이 아직 없습니다.)이 예비 신자와 신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성야 미사는 무려 4시간에 걸쳐 끝이 났습니다. 보통 성체를 모신 다음 다 같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데, 특히 그날은 구원의 표시인 성체를 모시고 모두가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한 곡이 끝나면 아쉬운 마음에 한 곡을 더 부르며 춤추었습니다. 실로 축제의 밤이었습니다. 주님이 선사하신 구원의 기쁨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밤이었습니다.

부활 성야를 지내는 모든 분들이 온몸으로 주님 구원의 선물을 받으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느님이 손수 마련하신 제물

하느님이 손수 마련하신 제물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위해 손수 마련하신 제물이다.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축복은 구원이다. 하느님이 죄로 얼룩진 인간 역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야말로 하느님이 진정으로 주고자 하신 축복이다.

송봉모, 『순례자 아브라함 1』

실천 한 가지

가족과 함께 부활 성야 미사에 참석합니다.

기쁨은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울림의 메아리다. / 마미언

주님 부활 대축일

사도 10,34ㄱ.37ㄴ-43 / 콜로 3,1-4 또는 1코린 5,6ㄴ-8 / 요한 20,1-9 또는 마태 28,1-10 또는 루카 24,13-35.

04/12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네!

말씀 길라잡이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은 부활 대축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나요? 만약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대한 부활 대축일을 지낸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수도회 입회를 위해 성소 식별을 할 때였습니다. 성소 상담 중에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굴곡이 있기에 그 삶 안에 슬픔도 기쁨도 존재합니다. 한참 힘든 고통의 시기에 '주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계신가?'하는 의문이 너무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성소 상담 중에 주님께서 저의 고통 한가운데에서 저와 함께 고통받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만 고통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을 때, 마침내 주님께서 저의 마음 안에서 부활하시어 저에게 무한한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위로와 기쁨으로 저는 사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듯이, 저의 고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고통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봉헌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고통을 위로와 평화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신적 품위

예수님은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작아진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그들이 지닌 신적 품위를 알려 주셨다. 그리고 당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기하며 언제나 똑바로 서서 기도했다. 그들은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신적 품위를 선사했음을 체험했던 것이다.

안셀름 그륀, 『참 소중한 나』

실천 한 가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나눕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 파스칼



돌아섬

2020년 사순 시기 묵상집

발 행 일	2020년 1월 1일
발 행 인	김준철 신부
편 집 인	한지영 수녀
편　　집	임미숙, 문혜영, 전도영
발 행 처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주　　소	04918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중곡동)
전　　화	02)2268-7103
팩　　스	02)2268-7104
E-mail	pmsk@pmsk.net
홈페이지	www.pmsk.net
페이스북	www.facebook.com/pmsk1004

교황청 전교기구는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소속으로,
선교 지역 신생 교회들의 사목 활동과 사제 양성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세례를 받고 파견된 이들
세상 안에서 선교하는 그리스도 교회



해외 선교 사제가 봉헌할 미사 예물을 접수합니다.
02.460.7611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라 포레스타 수도원,
이탈리아 리에티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